

특별기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교과서

- 현 중학교 교과서 81권을 분석하다 -



● 허은정 대표

현재 아이 넷을 둔 학부모이며 생명
인권학부모연합 대표로 청소년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
이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 넷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교육, 그리고 새 교과서를 받을 때의 설렘과 그 기대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던 가치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넷 아이들 인생에서도 생명이 될, 변하지 않아야 하고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물려주고 기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학교 교육의 근본이 되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81권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는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매일 보는 이 책이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교과서일까?’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집으로 안 가져온 지가 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교과서를 들고 집과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힘듦을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배려라 믿었기에 교육부에 감사했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감동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활동 3 >> 아래의 만화를 읽고 피임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이상 말해 보자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예방하려고 배우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

콘돔은 피임기구 아닌가요? 에이즈도 예방할 수 있나요?

피임은 실패할 확률이 있고, 생명의 탄생이라는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일이므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랍니다.

맞아요! 콘돔은 에이즈 등의 성병을 예방하기도 한답니다.



그 몇 년간의 감동과 고마움이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인 저로서는 눈에, 가슴에 눈물이 흘렀고,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일어나 동일한 심정을 가질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아이 넷, 아줌마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낯 뜨겁고, 살벌하기까지만 11가지 피임방법과 도구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 첫 부분에 설명이 된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새해에 중1이 될 우리 둘째가 이 교과서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이 다 아찔해졌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을 대한민국 학부모들!

우리는 부모,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랑하는 내 자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 인생에 등불이 될 변하지 않는 것을 남겨 주고 가야 할 부모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런 지식은 내 자식에게 도저히 먹일 수 없다. 모두 소각하든지! 반드시 개정, 삭제해야 한다'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교과서 81권을 보는 동안 부모로서의 솔직한 심정은 ...

“쓰레기대! 미쳤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무슨 계산을
넣은 거지?”

“대한민국 아이들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 거지? 어디까지 망하게 하려는 거지??”

“이 교과서를 누가 만든 거지? 누가 허락한

거지? 누가 지시한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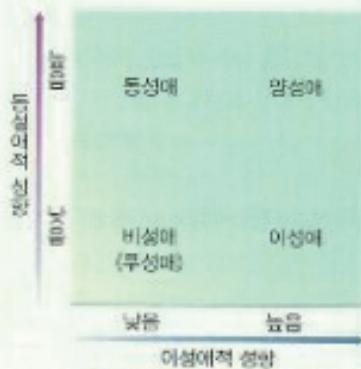
“자식과 손자, 손녀, 조카가 있는데도 이렇
게 만들었던 말인가?”

“당신 자신도 모르면서 우리 아이들만 먹도
록 만들었던 말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지나갔습니
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아이들 부모로서 장
래가 아찔했습니다.

4.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은 자신을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비성애자(무성애자)로 지각하는 것을 말하며,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이나 '성적 성향'이라는 용어도 종종 성 정체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성애와 동성애 구분 차원

[출처] 채규민(2006), 성 행동 심리학, 학지사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성 정체성(성적 지향)은 연속선 위에 있고 인생 전체에 걸쳐 형성된다고 한다.

중요 개념?

비성애(무성애)는 이성애 동성애에 모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p>보수주의 "성적 행위의 전제는 결혼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전의 성적 관계나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는 모두 부도덕함. • 성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임.
<p>중도주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성적 관계는 가능함. •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성은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므로 긍정적임.
<p>자유주의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을 결혼이나 사랑과 결부하지 않고 서로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 성적 관계는 가능하다고 봄. • 자발적 성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가능함.

입문 (대박기)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란 성별에 관한 근본적인 감정, 즉 스스로를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성 정체성(성적 지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원인	내용
생물학적 원인	염색체와 성호르몬의 과다 혹은 결핍으로 발간되었다고 주장함.
심리적 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어린 시절 깊은 성별을 가진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함.
행동적 원인	학습에 의해 습득되고 강화를 받는다고 주장함.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숙도, 성정체성, 성지향성

활동 4 | 모든 활동 |

성 정체성(성적 지향) 측면에서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토론해 보자.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정점 탐구 •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사적 영역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 국가나 사회가 사랑과 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규제하면 안 된다.
-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인간인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 이성 결혼은 허용하고 동성 결혼은 규제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

반대

-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 쿠틀을 참고하여 동성 결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탐구하고 성찰하기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할까?

▶ 다음 글을 읽고 동성 결혼 허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써 보자.

프랑스는 2013년부터 동성 부부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미니크 베르티노의 가족 담당 장관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평등권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동성 부부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반면에 18세 이상의 인척이 아닌 두 성인이 공동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시민 결합 지위만 인정해 왔기 때문에 동성 결혼 허용은 매우 이례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며, 아이를 낳고 가정과 사회를 이룬다는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고, 사회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반반할게 나오고 있다.

- SBS 뉴스, 2012년 7월 4일 -



▶ 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설명을 읽고 모둠 활동을 해 보자.

보수주의적 관점

성이 결혼한 상태에서 출산이나 사랑과 관련되었을 때만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성을 도덕적이라고 본다. 쾌락만을 위한 성은 비도덕적인 것이며, 혼전 혹은 혼외에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관점

성을 사랑, 결혼, 출산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성은 일차적으로 쾌락을 위한 것으로, 성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숙한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성적 관계를 허용한다.

만일 교육부도 교과서가 이 지경인지 몰랐다면 이제껏 그 수고는 무엇을 위한 수고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히 남의 자식들을 죽이려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너무도 혼란스러운 교육내용! 정체를 알 수 없는 교육목적의 방향!

81권 전 출판사 교과서를 보는 내내 보고 있을수록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 인생의 끝에 맺어질 열매를 생각하니 기쁨과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세대, 이 나라 장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성장할 미래의 인재들과 이 나라 장래를 생각할 때, 가슴이 수백 번 무너져 내렸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인 나조차 아이들 교과서 81권 모두를 보고 있자니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아이들을 흔들고 문제가 심각한 교과서로 교육을 하면서 무너져 갈 이 땅,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새벽을 맞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도 순수하여 갈 바를 알지 못 하고 가는 우리 아이들 인생의 등불이 저런 교과서라니...

부모로서 도저히 물려줄 수 없고,
물려주고 싶지 않은 교과서!
남겨주고 싶지 않은 교육!

어쩌면 이렇게 81권 교과서가 같은 말을 하고 동일한 맥이 흐르게 할 수 있던 말인가!

소리 없이 가는 공교육이라는 거대한 배에,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잘 가르쳐 주리라 믿으면서 아이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독인지 약인지도 모를, 무조건 주어진 학생인권조례로 무너져가고, 온 정신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배우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부모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안전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교육 속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회색 안개 같은 무섭고도 거대한 배에 우리 아이들을 태워놓은 심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성적 관계나 행동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타인이나 사회적 관행 등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권리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한다.

건강 비타민 플러스

청소년의 성 행태

2011년 전국 학생을 대상(75,643명 대상, 중학생 38,474명, 고등학생 37,169명)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한 성관계 시작 연령은 13.8세(중학교 11.2세, 고등학교 14.5세)였다.

성관계 경험률은 응답한 학생 75,643명 중 4.9%(중학생 2.3%, 고등학생 7.4%)였고, 이 중에서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1%(남학생 10.1%, 여학생 10.3%)였다.

한편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66.1%(중학생 74.2%, 고등학생 58.1%)로 나타났다.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이 성매개 감염병에 더 많이 걸리는데,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교육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적게 받았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항목	비율 (%)
성매개 감염률	4.9
성관계 시작 연령(세)	13.8
성매개 감염병 경험률	10.1
연간 성교육 경험률	66.1

- 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2012 -

▲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가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고,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과서를 전면 검토하여 이와 같은 내용은 개정, 삭제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교육이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교육을 받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으며, 철저히 그 미래에 맞닥뜨릴 결과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라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배우는 내 자녀의 교과서들, 정녕 이대로 괜찮단 말인가?

정말 내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모라면 모두 동일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배워서 우리 아이들의 건 강한 성, 건강한 정신, 아름다운 인생은커녕,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와 땀과 기쁨의 수고로 키운 우리 자식들을 성년이 채 되기도 전에 쥐고 흔들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교과서이고 이런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들, 올바른 교육을 받는 나라, 올바른 학교에 다닐 수 있음에 늘 감사했는데, 요즘처럼 매일 매일 부모로서 근심이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날들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아름답고 순수한 꿈들이 건강하게 꽃 피기도 전에 잘못된 성 관념에 빠져든다면...!

아이들을 살려낼 길과 살려낼 기회를 교육을 통해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한 중1.2.3, 고1.2.3 전 과정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종교교 시절 콘돔 사용 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피임 방법을 배우고, 성적지향이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성교육만을 받고, 동성애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도, 성교육 강의를 통해서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보면서 동성애 영상을 저장하고 셀프영상을 찍은 고1학생도 만났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은 왜 하지 않습니까.

한 순간에 아이 자신도 모르게 망할 길에 들어서고 다시 회복될 기회조차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교육에 더욱 두려움을 가져야겠습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교과서! 마땅히 배워야 할 가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자랑스런 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무지 먹일 수 없고, 먹고 싶지도 않은, 썩은 물을 날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먹게 하는 이 같은 교육을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학부모의 가슴에 눈물과 분노를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분석하게 된 것은,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분석하다가 ‘학생인권조례가 이 정도면 교과서는 어떨까?’ 하고 궁금하던 차, 중 1 자녀의 생활 윤리 교과서에서 ‘젠더’를 발견하게 된 게 계기였습니다.

성 역할: 생물학적 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로 확인

- ① 성의 의미는 한 가지다. (O, X)
- ② 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기준이다. (O, X)

오이더 성을 할마도 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성(性)이란 무엇일까? 성의 의미는 다양하다. 생물학적 성(sex)은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적 특징 또는 성관계를 뜻한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다음 세대를 이어 가게 하고, 감각적 쾌락도 준다.

한편 사회·문화적 성(gender)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라며 학습되는 *성 역할을 의미한다. 성 역할의 차이나 관계가 사회·문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성은 상대방을 생물학적 특징과 관계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성애자'라고 부르며, 이들은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동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동성애자나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성을 바꾼 성전환자 같은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성애자 중에는 성적인 취향 또는 행동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한 가정 든든한 부모님 사이에서 사랑 받으며 태어난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고 믿는 내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도 알지 못한 사이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내가 이미 여자(남자)로 태어났어도 다른 성인 남자(여자)가 될 수 있으며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니!

검색을 해보니 양성 평등의 개념으로 시작했던 젠더의 개념이 지금은 **50가지 이상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성 개념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시 학부모들이 100여만 원을 자원하여 가정, 기술, 윤리, 도덕, 보건 5과목 전 출판사 81권을 구입, 직접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여 빨리 전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알리고자 생명인권 학부모 연합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250석을 가득 채워 교과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가졌습니다.

당일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한 예비중 학부모의 눈물이 담긴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자식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교과서 내용 그대로 당신 자식이 교육을 받아도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81권 전 출판사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과도한 피임 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고 많은 페이지 수를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

지만, 생명 존중이나 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성적인 선택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나 심각한 질병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누락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81권 교과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은 과목 이름이나 교육 목표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정, 기술, 도덕, 윤리, 보건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양성성, 성적지향, 피임의 11가지 방법,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비중 있게 가르치는 것이 맞단 말입니까? 마치 성 해방 과목을 가르치는 교과서처럼 말입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중학생이 된 아이에게, 어른이 보기에다 낮이 뜨거울 정도로 너무도 상세하게 피임의 11가지 방법을 가르치다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 자식에게 정말로 주고 싶지 않은 교과서였습니다. 학부모로서 보기에 가슴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과서의 문제점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교과서! 다음 세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른으로서 책임 있고 후회를 남기지 않을 교육을 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교육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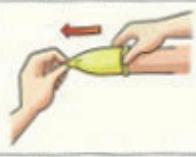
그 사랑을 약속하면서, 지금 즉시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당속 건강 이야기 콘돔 사용법

약국, 편의점, 자판기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콘돔의 사용법을 알아보자.

콘돔이 다른 피임법에 비해 좋은 5 가지 이유 ▼

1. 저렴하다.
2. 사용이 간편하다.
3. 반대되는 것이 많아 쉽게 알 수 있다.
4.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피임 성공률이 높다.
5. 에이즈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개봉한다.	② 콘돔의 끝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비틀어 잡아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콘돔의 끝을 엄지와 검지로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발거된 음경 끝까지 씌운다.
		
④ 사정 후 음경에서 콘돔이 빠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질 밖으로 빼낸다.	⑤ 정액이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콘돔을 벗긴다.	⑥ 벗겨 낸 콘돔은 잘 묶어서 휴지에 싸서 버린다.

높은 효과	피임법	원리	주의점
피임 실패율 약 1% 미만 	정관 수술	정관을 묶거나 절단하여 정자의 이동을 차단함.	• 시술 후 신경 쏠 일이 거의 없음. • 정관 수술: 수술 직후 3개월 동안 다른 피임법을 병행 • 임플란트: 3년 후에 재이식
	난관 수술	난관을 묶거나 절단하여 난자의 이동과 수정을 막음.	
	자궁 내 장치 (루프, 미레나)	부프나 미레나(호르몬 함유)를 자궁 안에 시술하여 수정과 착상을 방지함.	
	임플란트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하고 있는 작은 막대를 피부 아래 이식하여 정자의 이동과 수정을 막음.	
	피임 주사	프로게스테론 약물을 피하 주사하여 피임	
	경구 피임약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 복합물을 매일 복용하여 피임	
낮은 효과 피임 실패율 약 30%	피임용 패치	두 종류의 호르몬을 함유하는 패치를 피부에 붙임.	• 피임용 패치: 약효가 끝나는 시기에 교체, 붙이는 위치가 정확해야 함. • 콘돔: 정확한 사용법 숙지 • 자연법: 추정되는 가임 기간에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성생활을 하지 않음. • 피임 효과가 낮은 피임법들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함.
	남성용 콘돔	발기된 음경에 덧씌워 정액이 여성의 체내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함.	
	이성용 콘돔	질 내부를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여 정액이 여성 체내로 이동하지 않도록 함.	
	자연법	월경 주기, 기초 체온 측정, 질액 관찰 등의 방법으로 배란 일과 가임 기간을 예측함.	
	살정제	질 좌약이나 젤리 등의 형태로 질 안에서 복어 정자의 활동을 약화시키거나 죽이는 방법	
	질의 사정	사정 직전에 음경을 질외로 제거하여 질 밖에 사정하는 방법	

• 응급 피임약: 성교 후 72시간 내에 고용량의 호르몬제를 복용하여 배란을 방해하거나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최대 한 번의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높다.